



일부 신흥국 보험시장 동향 및 특징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신흥국 가운데 멕시코, 인도네시아, 케냐, 터키, 베트남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됨.¹⁾

- 해당 신흥국 보험시장 대부분이 2010~2014년 보험료 증가율(CAGR)이 두 자릿수를 나타냈으며, 2018년까지도 이와 같은 고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- 높은 GDP 성장률, 중산층 인구비중 확대 및 소득증가, 낮은 보험침투도,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러한 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■ 해당 신흥국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,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,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글로벌 보험회사에서 강하게 나타남.

- 터키의 경우 2013년 생명보험 신계약 가운데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81.2%를 차지하였으며, 손해보험과 상해 및 건강보험에서도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.
-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3년 생명보험 신계약 중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21.1%였으며, 빠른 증가세를 보임.
- 최근에는 베트남과 터키에 진출한 푸르덴셜과 알리안츠 보험 그룹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, HSBC 은행과 각각 10년 기간의 방카슈랑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음.

■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금융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화된 소비자 니즈(needs)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개발 능력을 보유한 보험회사들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임.

- 브라질의 Seguros Banamex 보험회사는 장기투자 플랜(plan)을 제공하는 새로운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하여 주목을 받음.
- 터키의 Ergo Sigorta 보험회사는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 및 질병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.
- 베트남의 Dai-ichi Life와 Generali는 만성질환(non-communicable disease)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한 바 있음.

1) timetric(2015. 6), "Insight report: Emerging markets-identifying sources of growth in the insurance industry" 참조.

■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은퇴 관련 보험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.

- 베트남과 터키 정부는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어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어 민영 보험회사의 은퇴 관련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
■ 생활습관 변화, 소득증가,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.

- 멕시코, 케냐, 베트남의 1인당 건강관리비용 지출(healthcare expenditure)은 2010~2013년 각각 연평균(CAGR) 10%, 29%, 34% 증가함.
- 건강관리비용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멕시코, 케냐, 베트남 건강보험 시장은 2010~2014년 각각 연평균(CAGR) 10.2%, 32.6%, 24.1% 성장함.

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, 자기자본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.

- 멕시코는 2015년 4월 솔벤시2에 기초한 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2016년 중반 시행될 예정임.
- 인도네시아는 2013년부터 RBC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, 2015년부터 최소요구자본이 증가함.
- 터키는 EU 가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, EU 회원국이 될 경우 솔벤시2 규제를 적용받아 보험회사들의 요구자본 수준이 높아질 것임.
- 자기자본 규제 강화로 자본조달 능력이 부족한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M&A 등이 추진될 수 있음.

■ 전통적인 판매채널로 보험상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 인구 비중이 높으며, 따라서 저소득 계층도 가입이 가능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(microinsurance) 상품이 주목을 받음.

- 2012년 멕시코, 인도네시아, 케냐, 베트남의 빈곤층 비율²⁾은 각각 52.3%, 12.0%, 43.4%, 17.2%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.
- PT 푸르덴셜 생명보험(인도네시아 푸르덴셜)은 2013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, 호주 보험회사인 IAG는 2015년 베트남에서 각각 다양한 담보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함.

(timetric 등)

2) 1일 기준 1.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을 말함.